

# 여행문학으로 읽는 김정중의 『연행록』

-정가현(程嘉賢)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함영대\*\*

|| 차례 ||

- I. 머리말
- II. 1791년 冬至使行과 김정중의 『연행록』
- III. 金正中和 程嘉賢의 교류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김정중의 『연행록』을 여행문학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연행에 임하는 김정중의 포부와 자아, 김정중이 경험하는 사건과 사물인식을 살피고, 만나는 사람과의 교류 역시 주의깊게 관찰했다. 이들은 여행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로 연행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김정중의 삶을 깊이 전환시킨 것이기도 하다.

정가현과의 교류는 김정중의 연행 체험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다. 북경 유리창에서 우연히 만나 교류를 맺은 김정중과 정가현은 스스로의 만남을 神交라 일컬으면서 상대를 마음을 알아주는 벗으로 받아들였다. 주자학적 교양을 가지고 있으며, 관직을 하지 않은 재야 문사라는 공통점은 두 사람에게 동질감을 불러 일으켰다. 김정중은 연행이라는 우연한 여행을 통해 生面不知의 사람을 평생의 벗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은 운명처럼 만나 상호지간에 호의를 느끼며 필담을 나누었다. 井田, 服制, 과거제도, 문벌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를 수창하면서 서로에 대한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헤어질 때에는 오래된 연인처럼 아쉬워했으며 惜別 후에도 서신을 교환하며 교유를 이어갔다.

김정중과 정가현의 교유는 대화한 내용이 그 주제가 진중하고, 교유의 자세 역시 진지했다는 점에서 조·청 양국의 재야 지식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미있는 공감의 기억으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문인 김정중은 燕行이라는 여행을 통해 재야 지식인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하며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것은 여행을 통해 보고 듣고, 또 정가현이라는 청조의 재야 지식인을 만남으로서 성취된 것이다. 여행문학으로서 읽을 때 김정중의 『연행록』은 더욱 精彩를 발휘한다.

주제어 : 김정중, 정가현, 연행록, 재야 지식인의 교유, 여행문학.

## I. 머리말

여행은 기본적으로 여유와 산물이다. 여행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대개의 음미할 만한 여행기는 공무에서 조금 한가로운 이들의 손에서 나올 때가 많다. 특히 연행이나 사행 등 국가적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그 여행의 진면목은 직접적인 공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던 신분의 저자에 의해 잘 기술되었다. 그러므로 자신 역시 연행의 경험을 가지고 여행기를 남겼을 뿐 아니라 앞서 저술된 여행기를 총평한 김경선의 발언은 기억해 둘 만 하다.

김경선은 19세기 연행록의 백미 가운데 하나인 『燕轅直指』의 저자이다. 그는 『연원직지』의 서문에서 18세기 연행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으로 金昌業의 『老稼齋燕行錄』, 洪大容의 『湛軒燕記』와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꼽았다. 그것은 물론 연행록을 작성하는 문체상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지만 그 자체의 성과만으로도 18세기의 연행록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sup>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행한 문

사들의 연행록이다. 이들은 정해진 외교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사나 부사, 서장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상당 부분은 문필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선발되었으며 연행의 체험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역시 넉넉했다.<sup>2)</sup>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김정중의 『연행록』 역시 18세기 말에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행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관직 없는 평양선비 김정중은 1791년 冬至正使兼謝恩使인 김이소의 자제군관으로 연행길에 올랐다. 연행에서 그는 청나라의 다양한 이국문물을 체험하고, 북경의 유리창에서 중국의 문사들과 교유를 나누었다. 특히 강남 선비 程嘉賢과는 神交를 맺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일기체 형식으로 견문기록과 필담, 시문창화로 나누어 정갈하게 기록했다.

김정중의 『연행록』은 여타의 연행록과 비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일찍부터 『연행록선집』에 포함되어 국역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다. 몇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연행록의 작자인 김정중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그의 연행록은 실학적이지도, 대중국인식을 선명하게 그려내지도 않았다. 과거 연행록 연구의 주류적인 관점에서 김정중의 연행록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다.<sup>3)</sup>

1) 金景善, 『燕轅直指』 「燕轅直指序」,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以史例則稼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縝密, 朴類夫立傳, 而瞻麗闊博, 皆自成一家, 而各擅其長.” 이에 대한 지적은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55면 참고.

2) 연행에서 자제군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윤경희, 『연행과 자제군관』, 『제10회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10 참고.

3) 최근 한문학 쪽에서 진행된 연행록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방법에 대한 시론을 검토해 보면 연행록 연구는 아직 역사적 접근방법이나 형식과 체제, 유형의 분류 등 거대주제의 문제의식에서 진전하지 못한 감이 있다. 김영진, 『연행록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방법에 대한 시론』, 『대동한문학』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65~91면; 역사학계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도 연행록의 역사적 의미나 대외인식의 확인에 집중

김정중과 정가현의 만남을 검토한 임기중과 박수밀의 연구는 그 점에서 김정중의 연행록에 대한 소중한 연구 성과다. 연행록 전체를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임기중은 일찍부터 두 사람의 필담과 수창의 기록에 주목했다.<sup>4)</sup> 박수밀은 김정중과 정가현의 만남을 ‘神交로서의 개인 우정’이라는 시각으로 검토했다.<sup>5)</sup> 북경 유리창에서 이루어진 초청 지식인 교류의 세 가지 층위 가운데 하나로 다룬 것이다. 그런데 임기중과 박수밀은 김정중의 연행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임기중은 김정중이 ‘의식의 이중구조를 드러내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가현과의 시문 수창에서 시문수창을 풍월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된 가치의식을 과도하게 주입했다는 것이다. 박수밀은 김정중의 관심사가 일반생활 풍습과 제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국의 지식인들에게 학술과 문화동향을 깊이있게 물으려 하지 않았고, 소중화 의식에 젖어 거대함 문명 세계를 들여다보고 탐구할 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은 시문 수창과 필담, 자기 독백을 서술한 부분에 기초하여 제출된 것이다. 옹당 그만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자료에 의지하여 전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 두 사람의 필담과 수창, 심지어 독백은 여행의 여정,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전체상을 이해한 가운데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자, 『“연행록” 연구를 위한 제언』, 『명청사연구』 30집, 명청사학회, 2008, 1~11면; 최소자, 『18세기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 32집, 명청사학회, 2009, 1~37면; 한편 중국측의 연행록 연구 역시 자국사 내지 자국문화의 확장된 인식이라는 점을 우선시한다. 이 점은 홍성구,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93~121면 참고.

4) 임기중, 『제7장 연행록의 대청·대조선 인식』, 『증보판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386~422면.

5) 박수밀, 『북경 유리창과 지식인 교류의 세 층위』, 『한국언어문화』 4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64~69면

김정중과 정가현의 詩文酬唱은 연행이라는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의도된 만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양국 문사들간의 문학적 交驩인 셈이다. 물론 김정중은 연경의 강개한 선비를 찾았고, 정가현은 강남출신 漢人 文士였으므로, 두 사람이 가진 일말의 공통점은 만남을 예비한 요소가 없지 않다. 정명도의 후손인 정가현과 주자학을 존중하는 조선의 선비 사이에는 동질감을 느낄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그 점은 고려되어야 할 의미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朝·淸의 재야 지식인인 두 사람의 교류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 점을 지나치게 문제삼는 것 역시 명백히 타당한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답과 자기 독백의 결과로 제출된 발언을 소중화 의식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역사주의적 시각에 경사된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이 글은 김정중의 연행록을 조·청 양국 문사가 지닌 우열의식의 산물, 또는 ‘小中華’라는 華夷論의 관점이 아니라 1791년 11월부터 1792년 2월 사이에 전개되었던 ‘김정중의 중국 여행’이라는 시선으로 읽고자 한다. 조선의 재야 지식인이 편견없는 시선으로 청나라를 여행한 여행기로서 이 연행록을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김정중의 연행록이 가지는 성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중이 연행에 임하는 자세와 견문을 기록하는 태도는 살피고, 연행을 구성하는 사건과 사물인식,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만남을 중요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그것은 모두 연행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특히 북경 유리창에서 만난 정가현과의 교류는 중요하다. 김정중 스스로 자신의 연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특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김정중의 연행록을 청나라의 이국문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기이자 조·청 양국의 문사들간의 문학과 학술에 대한 교류로서, 우정의 문학으로서 읽으려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연행이라는 ‘특별한 여행’을 통해 만난 벗으로 인해 자이를 찾아가는 자기 발견의 문학으로 읽

으려는 시도이다. 조선 선비 김정중과 청나라 문인 정가현은 서로를 만나 교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찾아간다는 가설이다.<sup>6)</sup>

## II. 1791년 冬至使行과 김정중의 『연행록』

### 1. 여행자 김정중의 포부와 자아

1791년 11월 조선의 동지사행은 한양을 떠나 북경을 향해 출발했다. 정사는 金履素, 부사는 李祖源, 서정관은 沈能翼이다.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연행사절에는 자제군관 김정중도 끼여 있었다. 이 연행사절은 조·청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외교관례에 따라 청 황제에게 문안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연행사절 내의 분위기는 평안했다. 연행출발 당일 남쪽으로 귀양가는 동생과 작별인사를 해야 할 처지였던 김정중이 함께 자제군관으로 동행하는 김이교와 馬上酬唱錄을 지으며 산수를 품평하지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였다.<sup>7)</sup> 국내외의 정세 역시 안정되어 있었다. 김정중은 조선과 청의

6) 최근 연행록을 문학 방면에서 검토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 연행록 문학 여행문학, 또는 여행자 문학으로 분류하여 접근한 것이 있다. (김현미, 『연행록 문학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과제』, 『대동한문학』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39~63면) 연행록을 여행의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그동안의 연행록 연구가 대청인식 내지 실학과 문학에 대한 부수적인 소재, 또는 학술교류의 흔적을 찾는 소재적 측면으로 활용되어 온 것에 비추어 환영할 만한 시아라고 판단된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한 개인의 여행에 대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연행록의 자료들은 좀 더 다채롭고 신선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7) 金正中, 『燕行錄』『奇遊錄』“但余弟以橫罹之厄將謫嶺, 同日離發, 携手出門, 一南一北, 雖行路之人, 爲之涕淚. 送弟渡江訖, 登鍊光亭, 見羸驂短僕, 出沒於長林杳靄之間, 亦復可憐. 俄而松園將上馬, 約余曰, 古人有馬上酬唱錄, 吾二人并轡先行, 評山品水, 或作古詩短律, 以爲消興之資, 何如耶.” 김정중 연행록에 대한 원문은 林基中 編, 『燕行錄』『燕行錄全集』74,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참고: 이에 대한 번역은 金正中 著, 鄭然倬 譯, 『國譯 燕行錄選集』VI, 『燕行錄』, 民族文化推進會, 1976, 33

경계라고 할 수 있는 冊文을 들어서기 직전에 머무는 의주의 統軍亭에서 出塞曲을 부는 비장한 객의 통소소리를 듣고도 ‘날아갈 듯한 마음’을 가졌다. 그곳에서 그는 龍川樂府에 즐거워하는 遊客들을 보고 ‘맑은 노래 고운 춤이 정자 위를 메워 풍류의 한 장면으로 변하니 도무지 戍樓가 아니었다’고 적었다.<sup>8)</sup> 당시의 연행의 분위기는 김정중이 자신의 백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연행의 행로나 기후 역시 급박한 변동없어 대체로 무난하고 평안한 연행이었다.

이우는 이번 길에 다행히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눈비를 막을 油衣도 전대에서 꺼내지 않았고, 추위를 피할 양가죽 옷도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았으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자며, 하루 해가 다하도록 華表의 塔이며 孤竹의 사당이며 射虎의 돌이며 蘆龍의 요새며 천 리의 돌이며 萬頃의 바다를 시로 읊어서 모두 시축을 넣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준마를 타고 내쳐 달려 선달 스무 사흘날 연경에 들어가니, 樓臺, 車馬, 市肆, 廟刹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취하게 하고 눈을 어지럽게 하였으며, 여러 번 궁전에 가까이 나아가 지척에서 황제의 威顏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海甸에 두 번 가서 밤에 네 번 등불놀이를 보고, 西山으로 방향을 돌리니, 앞 호수는 거울 같고 뒤 산기슭은 그림 같아 그대로가 한 폭의 西湖 그림이었습니다. 德勝門 밖으로 나가 金臺의 옛터를 찾으니 곁에 郭村이 있어 郭隗가 살던 곳이라는데, 잠깐 서서 방황하노라니 풀은 시들고 인적도 없이 쓸쓸하여 구슬픈 느낌만 더해 주었습니다. 또 太學에 들어가 周 때의 石鼓를 보고, 柴市에 들러 文天祥의 사당에 弔祭하였으며, 또한 호랑이를 기르는 虎園과 코끼리를 기르는 象園이 한층 기이하고 웅장함을 더하였습니다.<sup>9)</sup>

5~552면 참고.

8) 金正中, 『燕行錄』 「十一月 十七日」 “客有洞簫者, 作出塞曲, 其聲嗚咽悲壯, 令人有飛渡之意. 俄已月色呈露, 進龍川樂府, 以娛遊客, 清歌細舞, 繚繞亭上, 幻作風流一局, 非復戍樓模樣.”

9) 金正中, 『燕行錄』 「上伯氏書在玉河關因先來便上書」, “弟是役也, 幸際冬候和暖, 油衣一不出俗, 羊裘一不掛身. 健飯穩睡, 竟日吟咏, 華表之塔, 孤竹之祠, 射虎之石,

좋은 날씨에 하루가 다가도록 두루 명승을 관람하고 시를 지었으며 북경에 도착해서는 황제를 뵈고 북경 주변의 승경을 두루 보고 즐겼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행의 임무가 주는 부담감 없이 연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는 자랑스러운 소감이다.

사실 김정중은 이 연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정사나 부사 등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자신의 연행 참가와 유사하다고 제시한 노가재 김창업의 경우와도 다르다. 노가재는 몽와 김창집과의 친적관계로 인해 연행에 수행했던 것이다. 김정중이 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정사 김이소의 동생인 송원 김이교와 친분이 있어서일 것이며 어느 정도의 문필적인 식견 역시 그가 연행을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김정중은 연행사의 수행원으로 결정된 뒤에 매우 큰 기대를 품고 연행에 임했다. 燕의 雄傑과 險要가 천하에 으뜸이며 연 지역이 형세가 좋고 기름진 것은 周·漢 이래 다른 州들과는 다르다고 여겼다. 특히 그 지역의 풍속이 悲歌慷慨하며 다소 난폭하지만 신의를 숭상하고 한번 허락한 일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중히 여겨 포부를 가진 선비들이 여행하려 했던 곳이라고 동경하였다.<sup>11)</sup> 그러므로 자신도 그곳을 여행하면서 盛時를 노래하

---

蘆龍之塞，千里之野，萬頃之海，竝作奚囊中物。輕衣駿馬，長駟前進，去臘月念三日，入燕京，樓臺，車馬，市肆，廟刹，令人心醉眼眩，屢近殿陛，瞻咫尺威顏。往海甸，觀四夜燈燧，轉向西山，前湖如鏡，後麓如畫，便一西湖幅本，出德勝門外，訪金臺古址，傍有郭村，云是郭隗舊居，小立彷徨，衰草荒烟，只增悽感。入太學，觀周石鼓，過柴市弔宋丞相廟。且虎圈象園，添一奇壯。”

10) 앞의 책, “庸菴金相公，以冬至正使兼謝恩使。銜命出疆，携季氏松園居士，與之作萬里之役。因先相公夢窩赴燕時，與稼齋偕行，舊例也。是役也，余以一布衣，亦與從者之末，榮耀大矣。能事畢矣，人皆謂庸庵相公，莫能知君，非君，莫能見知於相公。且吾鄉數百年能文者何限，而此土之有此行者，君其一人焉。”

11) 金正中, 『燕行錄』 「上松園書」, “燕之形勝膏腴, 自周, 漢以來, 非與他州等。且其俗悲歌慷慨, 椎埋擊刺, 崇信義重然諾, 亦渤海之間一都會也, 故士之抱負者, 多願遊

고 싶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sup>12)</sup> 한껏 제 마음의 호기로운 기상을 드러내겠다는 의지이다. 그는 연행을 시작하여 아직 조선의 영토를 채 벗어나기 전에 이미 “맹세코 중국이 書肆에 三韓의 金正中을 알게 할 것”<sup>13)</sup>이라고 다짐했으며, 11월의 매서운 북방 날씨를 만나 양 갓옷을 입은 위에다 다시 무명옷을 걸쳐 입어야 할 때에도 출경하는 용만에 속히 도착하기를 고대했다.

연행의 와중에 김정중은 종종 여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곤 했다. 책문에 들어가기 직전, 자제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이제까지 옷을 군복으로 갈아입을 때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되뇌었다.<sup>14)</sup> 산해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동해의 한 선비로서 劍을 가지고 문을 나와 천리의 들판을 거쳐서 만리장성을 지나서 돌아가면 어찌 장하지 않겠는가.”<sup>15)</sup>라며 여행하는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며 자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여행 체험에 흥겨워하며 연행의 기쁨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

내가 해동의 가난한 사람으로 海甸의 등놀이를 보고 江南·江西 만리의 土産을 먹으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春夢처럼 황홀하다.<sup>16)</sup>

焉.”

12) 앞의 글, “余亦從執事後, 歷萬里長城, 觀薊門烟樹, 金臺落照, 遊於其市, 飲濁酒一斗, 醉後酌眞活之水, 磨礪石之顛, 作爲文章, 以歌盛時. 執事試看我筆頭奇氣, 有耶無耶? 必有之也.”

13) 金正中, 『燕行錄』 「奇遊錄」, “誓令上國詩書肆, 知有三韓金正中.”

14) 金正中, 『燕行錄』 「十一月二十二日」, “點檢衣裳後, 我境所着, 付衣田李生, 卽換作戎衣. 自顧其影, 非復舊我, 可笑.”

15) 金正中, 『燕行錄』, 「十二月十二日」, “余以東海一布衣, 持劍出門, 歷千里野, 觀萬里長城, 閱五箇月而歸, 則豈不壯哉!”

16) 金正中, 『燕行錄』, 「正月十四日」, “余以海東一窮生, 觀海甸燈戲, 喫江南西萬里土産, 自顧自思, 悅若春夢也.”

조선의 벼슬없는 평양 선비 김정중에게 연행의 체험은 그렇게 자부되고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여행자로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문물에 대한 경험과 그 실질적인 체험은 김정중에게 ‘春夢처럼 황홀한’ 경이로운 것이었다.

## 2. 연행의 견문기록과 그 지향

김정중은 자신의 연행록에 한양부터 의주를 거쳐 책문과 심양, 산해관, 북경을 경유하는 일정을 ‘道里’라는 항목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북경 正陽門의 車馬로부터 遼野까지 10곳의 壯觀과 萬佛樓를 비롯한 7곳의 奇觀, 華表塔을 포함하는 9곳의 古蹟을 적시하였다.<sup>17)</sup> 이 뿐 아니라 연행한 곳의 주요한 특산물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기존의 어떤 기록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견문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燕京에서는 白露紙를, 寧遠衛에서는 詹氏墨을, 永平府에서는 모직물인 白氈을, 沙河驛에서는 배와 밤을, 大凌河에서는 어류와 瓜類를, 野鷄屯에서는 뽕나무 줄기로 만든 桑枝筐을, 薊門에서는 眼藥을, 中後所에서는 말털 담요인 驄毯을, 寧遠에서는 白糖을, 撫寧縣에서는 遍食을, 瀋陽에서는 멧가지들, 淸山에서는 梨紅鹿茸膏를, 狼山에서는 고사리를, 連山館에서는 산펍을, 小黑山에서는 닭을, 白塔堡에서는 두부를 그 고장 토산품으로 특별히 치고, 通川의 바늘과 冷泉의 물은 다 關中에서 유명하며, 그 밖에 白薺, 땅콩[落花生] 따위가 있으나 남방의 원산물이므로 끼지 못한다.<sup>18)</sup>

17) 金正中 『燕行錄』 가운데 「道里」, 「壯觀」, 「奇蹟」, 「古蹟」 참고. 이것은 정가현이 필담 과정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의 성격도 지니는 것이다.

18) 金正中 『燕行錄』 「雜錄」 “燕京土產白露紙, 寧遠衛詹氏墨, 永平府白氈, 沙河驛梨栗, 大凌河魚蝦瓜, 野鷄屯桑枝筐, 薊門眼藥, 中後所驄毯, 寧遠白糖, 撫寧縣遍食, 瀋陽竹枝, 淸山梨紅鹿茸膏, 狼山薇蕨, 連山館生雉, 小黑山家鷄, 白塔堡豆腐, 及通川之針, 冷泉之水, 皆有名於關中. 而其餘白薺, 落花生之屬, 以南產不與焉.”

이것은 거의 편견없이 이국의 풍물과 물색을 관심어린 눈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김정중은 심양의 객점에서는 元宵餅과 鹿茸饅을 먹어보고 맛이 달고 상쾌하여 사람의 입을 향기롭게 한다고 평하고, 廣寧店의 저자에서는 배를 먹어보고 빛과 맛은 小黒山의 수박과 마찬가지로 맛이 달고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라는 구체적인 품평을 하기도 했다. 大凌河에서는 삭은 곤쟁이 젓인 감동젓을 먹어보고는 맛이 매우 좋다고도 하였다.<sup>19)</sup> 북경의 정양문 가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국수를 시켜놓고도 그 비린내에 먹지도 못하는 곤육을 당하기도 했다.<sup>20)</sup> 김정중은 위험도 불사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음식물을 먹어 보고 그 향미를 평가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국의 문물에 대한 김정중의 태도는 그토록 거침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정녕 무엇인가를 배우고 체험하려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체험의 욕구는 자신이 보고 들은 전문사실의 기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는 일기식으로 적은 『燕行日記』와는 별도로 『雜錄』으로 처리하여 기록한 글에서 청나라 문물과 풍습에 대한 적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은 두 가지 점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하다. 그 시선이 청나라의 매우 다양한 일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 우선 흥미롭다.<sup>21)</sup> 아

19) 金正中, 『燕行錄』「十二月初三日」“哺後歇城邊店, 余喫元宵餅, 鹿茸饅, 其味甘而爽, 香人牙頰”; 「十二月初八日」, “市肆有生梨, 色味與小黒山西菰一般, 味亦恬滑”; 「十二月十日」, “至大陵河, 大如渾河, 有土橋, 橋邊店有甘同醞, 味甚佳.”

20) 金正中, 『燕行錄』「十二月二十八日」“還至正陽門畔, 入酒食店. 店舍高大弘敞, 可八九十間, 腥膻之氣, 迎觸鼻孔, 令人欲嘔. 買麥麵一碗, 不可食, 其價則唱小錢十六分也.”

21) 김정중이 서술한 청나라의 일반적인 풍속과 일상에 대해 박수밀은 박지원의 말을 빌어 ‘배우고 물을 줄 모르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대국의 지식인에게서 물러 학술과 문화동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관심이 일반 생활풍속과 제도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김정중에게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재야 지식인들이 자체군관이 신분으로 참여한 연행에서 대국의 지식인들을 접할 기회가 과연 풍부하게

우리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객관적이면서 호의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중은 황제의 별찬 가운데 제비둥지 요리인 燕窩湯을 소개하면서 그 연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탕을 만드는 시기, 보양식으로 그 요리가 좋은 점들을 서술했다. 집을 짓는 방법이나 중국식 구들인 炕(炕)을 짓는 제도, 그곳에서 시는 생활습관도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발, 여자들의 머리 수식, 복장과 전족의 관습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sup>22)</sup>

김정중의 이러한 시선은 여행자가 이국 문물을 바라보는 편견없는 시선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소중화의 것이고 저들의 문화는 오랑개의 것이므로 저들의 문물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편견어린 과도한 시선은 없다.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응시할 뿐이다. 이를테면 “비단을 짜거나 물을 길거나 밥을 짓는 따위는 다 남자가 하고, 여자는 어린아이를 안고 긴 담뱃대를 비껴들고서 집안에서 놀 뿐이다.”<sup>23)</sup>라거나 “기러기, 집오리, 거위, 오리, 돼지, 양은 으레 늘 먹는 음식으로 삼으나, 개고기는 먹지 않는다.”<sup>24)</sup>라는 기록은 청나라의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고 “담배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비록 처녀일지라도 작은 담배 주머니를 차고, 주머니 안에 반드시 짧은 담뱃대를 꽂았다. 구리 그릇은 나라에서 금하므로 사기그릇으로 대용한다. 먹을 때에는 젓가락을 쓰고 숟가락을 쓰지 않

---

있을 수 있는가? 염암의 경우에서 보듯 그것은 그러한 기회는 그리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록이 자신의 기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연행록에 담겨진 사실과 그 의미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22) 金正中, 『燕行錄』 「雜錄」 참고.

23) 앞의 책, “織錦·汲水·炊飯等, 皆男子爲之, 女子則抱幼兒橫長竹, 遊戲於門內而已.”

24) 앞의 책, “雁·鶩·鵝·鴨·豬·羊, 例爲常饌, 而猶不食狗肉.”

는다.<sup>25)</sup>”라는 서술은 견문한 여러 장면을 종합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국의 풍물로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또 그대로 감상을 덧붙였다.

들보가 없는 집이 閭陽驛부터 燕京까지 이따금 있다. 지붕의 만들새는 평평한 큰 소반 같으며, 바닷가의 짠 흙이나 백회를 그 위에 바르는데, 비록 이영으로 덮지 않아도 해를 넘기며, 바람과 눈을 꺾어도 조금도 무너져 새는 곳이 없다. 그들 촌가에서는 재를 친히 여기고 똥을 귀하게 여기므로, 한길에 광주리를 들거나 삼태기를 멘 사람들이 있어, 뒤를 둘러쌌다가 똥이 땅에 미처 떨어지기 전에 얼른 광주리로 받는데, 그 똥 줍는 꼴이 자못 볼 만하다.<sup>26)</sup>

물론 김정중의 중국 견문에 비판적인 평가가 온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청나라의 성풍속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평가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春藥이나 春畫圖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럽고 도리에 벗어나 문란하기가 한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柵門으로부터 연경에 이르는 가게 벽과 마을 담에 성욕을 다스리는 春藥의 방문을 붙였는데, 그 글이 음란하여 더럽고 도리에 벗어나 문란하기가 한이 없다. 심지어 모형까지 만든 자는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sup>27)</sup>

우리창에 여남은 칸짜리 뒷간이 있어, 뒷간 안에 깨끗한 궤를 놓고 궤위에 芙蓉香을 사르며 그 사면의 벽에는 春和圖를 붙였는데, 사람이 뒷간에 오르면 그 값으로 반드시 돈 3文을 받는다.<sup>28)</sup>

25) 앞의 책, “南草, 男女老少, 無人不喫, 雖處女佩南草小囊. 囊中必插短竹, 銅器有邦禁, 故器皿代以磁器, 食時用箸, 不用匙.”

26) 앞의 책, “無樑屋, 自閭陽驛至燕京, 往往有之. 屋制如平大盤, 以海邊鹹土, 以白灰塗之. 其上雖無苫蓋, 經歲風雪, 小無壞漏之處. 其村家賤灰而重糞, 大道之上, 有持筐荷糞者, 環擁後, 糞未及落地, 輒以筐受之, 其捨糞之狀, 頗有可觀.”

27) 앞의 책, “自柵門至燕京, 店壁村牆, 貼春藥方文, 其文淫褻悖亂, 無所不至. 甚作俑者, 當服上刑.”

책문에서 연경에 이르기까지의 춘약에 대한 것이나 북경 유리창 뒷간의 ‘춘화도 서비스’에 대한 서술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김정중은 비판적인 시선이긴 하지만 청나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주의깊게 관찰한 후에 제출했던 것이다.

한편 김정중은 자신이 주의깊게 본 중국의 예절과 다양한 법식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 해를 마치면서 특정한 날을 佳節로 삼아 오곡을 섞은 죽을 돌려먹는 풍습이나 蘆子와 檳榔이라는 음식을 먹어 천식을 없애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풍습을 기록했다. 늘 차를 마시며 손님 대접에는 반드시 먼저 차 한 잔을 권한다고도 했다.<sup>29)</sup> 개인적으로 싸우지 않으며 술주정도 하지 않고, 서로 다투어 욕을 해 보았자 ‘왕 자라리는 뜻의 ‘왕바 [王背]’라는 욕을 하는데 그친다고 적었다.<sup>30)</sup> 이러한 기술은 꼭 어떠한 평가를 동반한 서술은 아니지만 그 관찰자의 시선이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것만은 뚜렷하다.

이 뿐 아니라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활풍습과 여타의 기술적인 것을 긍정하며 배워야 한다는 시선을 보여주기도 했다.

狼子山부터는 길 좌우에 버들을 심었는데 瀋陽에 이르러서 더욱 많다. 이 버들이 심양으로부터 燕臺에 이르는 2000리에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가지와 잎이 우거지고 밑줄기의 크기가 조금도 들쭉날쭉하지 않으니, 그 나무 기르는 법이 대개 이렇하다.<sup>31)</sup>

28) 앞의 책, “琉璃廠有溷廁十餘間, 廁中置淨几, 几上蕪芙蓉香, 其四壁貼春和圖. 使人登溷, 其價必收錢三文.”

29) 金正中, 『燕行錄』『雜錄』“清曆無臘, 以十二月初八日爲佳節. 其日和五穀爲粥, 迭相饋遺, 其人不飲生冷, 善喫茶, 又善食蘆子, 檳榔, 皆消息安胃之物. 茶則無時不服, 待客必先勸一盃.”

30) 앞의 책, “不私鬪, 不酒醜, 兒童輩或有時相詰, 則只呼王背, 背, 鼈也. 其辱蓋如是而已.”

31) 金正中, 『燕行錄』『雜錄』“自狼子山種柳於路左右, 至瀋陽尤盛, 自瀋京至燕臺二

돼지를 치는 데에 제각기 주인이 있어서 돼지 수백 마리씩을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서로 만나 가게에 들어가 함께 자기도 한다. 이렇게 한 뜰 안에 있어 두 무리가 서로 섞이면 가리기 어려울 듯하나, 동이 터서 두 사람이 가게 문밖에 나가 길가에 지팡이를 세우고 몇 마디 부르면, 많은 돼지가 각각 제 주인을 찾아 지팡이 밑에 와서 모이니, 그 길들여 기르는 데에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방 안에서 기르는 발발이는 시키는 것을 듣는데, 혹 그 목에 돈을 걸어 주면 반드시 저자로 달려가 어느 물건을 사서 돌아오기도 한다. 염소와 양의 번식은 과연 들은 바와 같아서, 천이나 백으로 무리를 지어 산과 들 사이에서 자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니, 바라보면 눈 같다. 감귤, 배, 밤, 석류, 수박 따위는 겨울을 넘기고 봄을 지내도 썩거나 굼지 않아 물건이 새로 판 듯하니, 과일 저장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가 미칠 바가 아니다.<sup>32)</sup>

수목을 재배하는 것이나 목축의 기술, 과일의 저장에 대한 관찰을 통해 김정중은 이미 중국의 발전된 것을 긍정하고 그 기술을 동경하는 듯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김정중의 연행록은 중국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며 ‘審勢’ 하거나 華夷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華夷論의’ 시선을 견지하기 보다는 진작부터 동경하던 대국을 ‘遊覽’하고, 異國의 풍물을 만끽하며, 천하의 장관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했다.<sup>33)</sup> 배워야 할 것은 배우려는 시선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역의 풍물과 일화를 정갈하면서도 가감없이

千里, 延連不絕. 枝葉之蒼鬱, 根株之長短, 少無參差, 其養樹之法, 蓋如此.”

32) 앞의 책, “牧豕在, 各驅羣數百, 相遇於路上, 投市店, 共宿一庭之內, 兩群相雜, 若難卞別, 而平明二人出店門外, 植杖路右, 呼呼數聲, 群豕各尋其主, 來集杖底, 其訓養有法. 養在炕內, 所指使或掛錢其項, 而必走市, 買某物歸. 羔·羊蕃息, 果如所聞, 千百爲群, 或寢或吽. 山野之間, 望之如雪. 柑橘·梨栗·石榴·西果之屬, 經冬歷春, 不敗不爛, 色如新摘, 其藏果之法, 非他邦所及.”

33) 물론 심세의 관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12월 14일의 기록에서는 청의 황제가 의식적으로 『강녀묘』를 표창하면서 풍속을 권장하려고 한다고 보았고, 15일의 기록에는 예전의 기록과 달리 중국 여인도 청인의 여자처럼 사람을 피하지 않으니 습속이 물들고 있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19일에는 關文을 관찰하여 청대 과거시험의 타락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옥전현에 이르러서는 ‘玉田’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했고, 宋家莊에 이르러서는 지역의 풍문을 채록하여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했다.<sup>34)</sup> 그 결과 유람에 대한 동경은 단순히 놀라고 감탄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진지한 여행의 기록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북경의 유리창에서 고대하던 중국의 선비를 만나 깊은 교류 - 김정중과 정가현은 그것을 神交라고 일컬었다 - 를 맺을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이렇듯 임하는 김정중의 마음 - 새로움을 동경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부심을 놓지 않으면서도 이국의 문물을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선을 머금고 있는 - 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Ⅲ. 金正中과 程嘉賢의 교류

김정중은 북경에서 강남의 선비들을 만나 마음껏 필담을 나누고 시문을 수창한 것을 가장 인상적인 여행 체험으로 꼽았다. 특히 문장을 잘하여 김정중과는 북경 체류기간에 적지 않은 시문을 수창한 정가현은 다시없는 우의를 맺은 것으로 추억했다. 정가현은 김정중을 다시없는 친구로 부르고 神交를 허여하였으며 천하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김정중은 정가현과의 이러한 인연이 아마도 전세부터 인연이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가현은 김정중과 이별하면서 모란도와 歙州硯, 一翁亭序文을 기증했다. 神交의 증표였다. 특히 모란도와 흡주연은 百金으로도 얻기 어려운 보물이었다. 세상에서 詩·書·畫 三絶이라 일컫는 張道渥이 指頭八分이라는 예서로 江亭의 扁額을 쓰고 물에 임한 광경을 부채에 그려서 준 것 역시 두터운 友誼로 떠올려졌다. 김정중은 정가현과 장도악을 만나고 넉넉한 이별의 선물을 받은 것을 여행의 값진 선물로 기억했

34) 金正中, 『燕行錄』 『十二月十九日』; 『十二月二十日』 기록 참조.

다.<sup>35)</sup>

김정중은 연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평양의 꽃다운 봄날의 정취도 즐기지 않았다. 아니 그는 즐길 수 없었다. 열흘간이나 집안에서 고목처럼 취해 정가현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연경의 봄을 상상하면서 추억에 젖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중은 새콤한 꿀과 같고, 달콤한 석류와도 같았던 장도악과 정가현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그 만남을 되새이며 그리워했다.<sup>36)</sup>

김정중은 1791년 12월 30일, 북경 유리창의 한 서점에서 정가현을 만났다. 기이하고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聚好齋라는 현관이 걸린 서점이었는데 정가현은 취호재의 주인이었다. 그는 강남에서 올라온 국자감 유생으로 취호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취호재는 사면의 벽이 명인의 글씨와 그림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정가현은 소탈하고 얼굴이 희어 조금도 속된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자신의 가게로 들어오는 김정중을 기쁘게 맞이한 정가현은 예를 갖추어 필담을 권했다.<sup>37)</sup> 첫 대면에서부터 김정중은

35) 金正中, 『燕行錄』 「上伯氏書在玉河關因先來便上書」, “邂逅江西南名士, 相與傾倒跌宕. 其中有程嘉賢者, 明道二十三世孫也. 其人善詞翰, 往來酬唱, 許我曠世神交, 呼我以海內知音, 可知夙世奇緣剗斷未盡也. 臨別出牡丹圖, 歙州硯兼一翁亭序文, 以佐遠驢, 不但文好, 圖與硯, 人皆謂百金難得, 非過語也. 又有張水屋者, 世稱三絕, 以指頭八分, 寫江亭扁額, 扇面畫臨水光景以贈我, 其厚誼, 俱可不忘. 松園每謂余曰, 君之歸橐不貧, 自顧海隅一鰥生, 歷過中國, 交結上士, 又得奇玩數種而歸, 未知前生種何等福田, 有此無量奇幸之事乎!”

36) 金正中, 『燕行錄』 「上松園書還家後」, “井田天氣, 日覺清佳, 滿城之人, 奔走若狂, 歌扇舞衣, 掩映於芳樹之間, 良辰霽景, 醺入耳目. 僕閉門苔巷不出庭, 已經旬日, 人皆謂吾身如枯木坐禪, 而不知吾心之在燕花薊柳間也. 燕薊之觀, 至春時爲盛, 春時光景, 以西山爲第一. 環堤數十里, 皆奇草嘉木, 宮姬市女, 盛飾明粧, 行到十七橋邊, 或飛鷗點茶, 或吹笙鼓簧. 竟日流連, 樓臺蕩漾, 車馬駢闐, 靜言思之, 湖光山翠, 滴滴眉宇間. 然終不若張程之草廬文酒穩話也, 水屋之韻, 少伯之雅, 如酸橘甘榴, 各存其性. 啖之, 味漸入佳境, 不覺心醉頰爽, 此世人那得復見乎?”

37) 金正中, 『燕行錄』 「十二月三十日」, “晡時, 悵然而歸, 過一書肆, 其側畔有小店門, 門上扁曰聚好齋. 筆甚奇古, 禮卿呼余, 入其門, 有二丈夫對坐桌上, 傍置酒鐺香爐, 四壁皆名人書畫, 視其人, 疏容白皙, 無一點塵俗氣. 見余至, 卽下榻相揖, 喜色浮動

문식있는 자기소개로 정가현의 호감을 얻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었다. 이후 김정중은 북경에 머물렀던 20여일 동안 두 세차에 정가현을 만나 필담도 나누고 시수창을 하기도 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神交를 맺었다.

### 1. 筆談의 주제와 성격

두 사람의 첫 필담은 1792년 1월 3일 잔 눈이 조금씩 내리는 겨울 날씨에 정가현의 서점, 취호재에서 진행되었다. 정가현은 이 자리에서 조선의 井田과 服色, 詩人의 多少, 연행사절의 복장, 문벌과 인재등용, 연행의 경과와 道里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중은 간결하게 답변했다. 그 주요한 질문인 정전제에 대해서는 평양에 箕子의 정전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 제도의 시행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넓지 않고, 주민이 점점 늘어, 옛 제도를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민간에서는 서로 돕는 화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에는 시인이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武夫, 賤卒이라도 한결같이 經書에 정통하다고 하였으며, 卿相과 將臣, 조상의 음덕으로 보임되는 벼슬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니 동방만 그러한 것이 아니며 재주가 뛰어나다면 문벌은 넘어서 등용된다고 하였다.

한 차례의 문답 후에는 다시 김정중이 묻고 정가현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필담이 전개되었다. 김정중은 소주 항주와 비교한 연경의 번성함과 미려함, 정가현이 흡주에 살아온 경력, 흡주와 휘주의 거리, 중국의 상례풍습, 여성의 再嫁. 연경의 울분에 찬 선비의 유무, 연행 중에 엿보았던 과거제도 시행의 부패상, 과거 합격자 명단의 간행여부, 나라의 으뜸가는 문사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정가현은 번성함의 정도나 거리와 같이 사실의 확인이 필

眉宇間, 坐余蒲壇上, 出黃粉紙及筆一硯一墨一, 共作筆談.”

요한 질문에는 그 사실 그대로, 지적받을 만한 풍속에 대해서는 다양함이 있다는 답변으로, 과거제도 시행의 부패상에 대해서는 동방에서는 公道대로 되느냐며 답을 돌렸다. 연경에 慷慨·悲歌하는 선비에 대해서는 聖明의 황제가 위에 계시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sup>38)</sup>

여기까지의 필담은 대개 상대방 나라의 풍습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문답한 것이다. 모두 양 당사자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종 간결하지만 진지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인 것이나 복식 풍속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세세한 호기심이지만 정전제나 문벌에 의한 등용, 과거제의 폐단 등에 대해 문답은 양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의미 있는 주제들을 깊숙하게 물은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문답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를 신뢰하고 주의깊게 바라보았다는 것이며 그 질문의 방식 역시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심어린 의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날의 필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중이 청나라의 풍습 가운데 불만스러운 몇 가지를 지적하며 묻는 대목에 대한 정가현의 답변 태도이다. 김정중은 장가현의 의중을 떠보고자 천자의 노란 옷을 오랑캐인 몽고인들이 입고, 몸에 해로운 弓鞋를 중국의 여인들이 신으며, 유희에 불과한 脚戲나 侏儒가 잔치자리에 오르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가현은 먹으로 글자를 지우고 한번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주홍이 오르고 못하는 말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가현은 청의 복식인 麻霞羅를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회피하며 풍월만을 하자고 권면했다.<sup>39)</sup> 김정중

38) 金正中, 『燕行錄』, 「正月三日」筆談 참조.

39) 金正中, 『燕行錄』, 「正月三日」, “余欲觀其意, 伺座上無人, 促膝問之曰, 黃衣天子之服而蒙胡僭之, 弓鞋害身之物而唐女用之, 脚戲·侏儒, 玩好之具, 而先登於宴享之席, 未知何故也. 少伯即以墨抹其字而一笑而已. 方是時, 茶烟初歇, 酒力微醺, 復磨

의 도발에 대해 정가현은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수 밀은 정가현의 이러한 태도 이면에는 깔끄러운 화제를 피하고 편한 화제로 회포나 풀자는 것이고, 그는 청나라의 지배 현실에 순응해 살아가는 지식 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는 온당한 것인가? 이 점에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김정중과 정가현의 필담은 끝났다. 酒興이 오른 후에 못하는 말이 없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기록을 볼 수 없으므로 필담으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그러나 마지막 대화의 장면은 좀 더 주의깊게 성찰할 대목이다. 忌諱에 대한 확인은 종종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후 두 사람의 시문과 왕래 서간을 보면 이 점은 매우 명백하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다. 이후 전개되는 시문 수창과 記文, 서신의 왕래에서 보이는 대화는 이 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 2. 酬唱詩와 記文·書簡의 왕래

김정중과 정가현의 두 번째 만남은 1792년 1월 6일 김정중이 취호재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7언시를 지은 김정중은 “자신의 삶이 비록 늘그막에도 고생스럽지만 여전히 옛 것을 좋아하며 젊어서부터 하남부자의 글을 읽었다”고 정가현을 만난 기쁨을 드러낸 후 저무는 날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은 나이 현에 아직 무명임을 솔직하게 고백했다.<sup>40)</sup> 이 시에 대해 정가현은 “두보의 품위와 소순의 기상으로 수십년의 정교한 연마의 산물”이라고 그 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sup>41)</sup> 견결한 의지를 박실한 시어에 담아 청아

墨近前, 語無所不到. 余右手把扇子, 打少伯所着麻霞羅曰, 焉用此? 少伯曰, 今夕只可談風月”

40) 金正中, 『燕行錄』, 「正月初六日」, “吾生苦晚猶好古, 少讀河南夫子文, (….) 莫問平生我所爲, 四十五今無聞.”

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화답하는 정가현의 시는 김정중에게 헌사된 것이다. 그는 “평생의 교유를 중히 여겼더니 종종 세상 물결을 잊고 고향의 깊은 것을 우르러며 굳센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 그대가 조선에서 와 만리 밖에서 神交를 맺게 되었다.”고 노래했다.<sup>42)</sup> 자기 삶의 지표를 밝히고 신교의 상대방인 김정중을 만난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중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비단과 같은 것을 얻어 귀국하는 길이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43)</sup>

이 후 두 사람은 서로 길게 만나 필담을 나누거나 시를 수창하지는 못했다. 다만 서로의 소식과 부탁을 담은 간단한 서신과 절구 한 두편으로 왕래했을 뿐이다. 김정중은 연경을 떠나오기에 앞서 정가현에게 그 동안의 사례로 종이와 떡, 자신이 직접 쓴 글씨를 보내면서 오나라 季札과 정나라 子產이 서로에 대한 우의의 표시로 縞帶와 紵衣를 보낸 사례를 인용하면서 情義를 보냈다<sup>44)</sup>. 이에 대해 정가현은 거듭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한번 들러 주기를 기대했다.

약속한 날인 1월 20일에 김정중은 정가현을 찾았고, 정가현은 김정중을 반갑게 맞아 표구한 모란도와 一翁亭序文, 송별의 정을 가득 담은 別章을 선물했다. 우연히 연경 저자거리에서 만난 인연에 대하여 神交로 許與하

41) 앞의 글, “少伯評曰, 工部之骨, 眉山之氣, 非數十年研精耽究, 何得有此?”

42) 앞의 글, “平生重交遊, 動輒忘氣勢, 仰睇古風遠, 俯懷壯心厲 (….) 君從東海來, 萬里結神契.”

43) 앞의 글, “余不辭而題曰, 不費一金, 得此錦繡之文字, 歸囊不貧.”

44) 金正中, 『燕行錄』, 「正月十一日」, “松園出各色詩箋紙二十幅, 色筆二枝, 別墨二笏. 勸余謝胡程二人之厚誼, 余修一書送之. 書云, 寸心不盡, 前程日斜歸來, 耿悵不可勝量, (….) 依教書送, 而病眼手澁, 字不成樣, 唐突之語, 無辭可對, 瓊律, 良劑, 感荷良深, 卽當鳴謝, 殘囊中, 惟文房數友而已. 縞紵相贈, 古人有行之者, 物雖不腆, 或可一笑而分頒耶.”

고 천하의 知音으로 불리운 정가현의 우의에 대한 김정중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전생의 인연이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찬탄이 되풀이 되었다.<sup>45)</sup> 정가현은 평양에 있는 김정중의 정자, 일용정을 위해 지은 『일용정기』에서 이전에 김정중의 질문에 대해 다 말하지 못한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士君子가 몸을 일으켜 道를 행함에, 행운이 있으면 현달하여 윗자리에 있으면서 공을 세우고 피를 세워서 임금을 훌륭히 보필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입혀서, 살아서는 영예를 누리고 죽어서는 오히려 사당의 제향을 받아먹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를 논하고 글을 강하여 선현의 학문을 잇고 또는 글을 지어 학설을 세워서 일상생활의 흥을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갓 그 옳지 못한 한 시대의 절개를 가지고 외로이 천지 사이에서 행하고 심지어 생사를 하나로 보고 득실을 똑같이 생각하여 뜻을 방종하게 하고 일을 버려서 평계를 삼아 피한다면, 그 사람됨이 어질고 변변치 못함이 분명한데, 옹이 그런 일을 하겠는가?”<sup>46)</sup>

정가현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사군자가 세상에 처하는 도리는 시대의 遇·不遇에 따라 분명한 것이므로 각 시대에 처하여 제 길을 가면 될 것이요, 헛되이 의리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생사와 득실을 돌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뜻을 방종하게 하는 것이고, 어질지 못한 변변치 못한 행동

45) 金正中, 『燕行錄』『正月二十日』“入見程少伯, 少伯甚喜, 坐余卓子上, 勸茶一杯, 出牧丹圖障子及一翁亭序文, 別章一軸贈之, 其意勤厚, 可感. 吾東與江南, 不啻萬有餘里, 邂逅燕市, 面不過數次, 書不滿一束, 而許以曠世神交, 呼之以海內知音, 是宿世因緣, 未盡除去.”

46) 金正中, 『燕行錄』『正月二十日·一翁亭記文』“士君子立身行道, 幸則達而在上, 建功立策, 致君澤民. 生享榮名, 沒猶廟食, 卽不然, 則論道講書, 以續先賢之緒, 或著書立說, 以待起居之興. 若徒以其不可一世之槩, 孤行天地之間, 甚至一死生齊得喪, 放情廢事, 有托而逃, 其於爲人賢不肖何如, 而翁豈取是哉?”

이러는 것이다. 정중한 충고이다. 난세에 도를 자임하고 현명한 처세를 권면하는 어조가 사뭇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있다. 그러므로 이후로도 도를 위해 정진할 것을 권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sup>47)</sup>는 記文의 마지막 덧붙였다. 묵직한 진정성이 느껴진다.

별장에서도 정가현은 김정중에게 나이에 구애받지 말 것이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면 龍門에 발탁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吾道를 높일 것을 권했다.<sup>48)</sup> 김정중을 대하는 정가현의 기대는 진지하고 한결같은 것이었다. 그런 진중함으로 인해 김정중이 자신이 선물받은 시문과 그림을 칭찬하는 대목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정도다.<sup>49)</sup> 김정중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호의를 보내는 정가현의 태도는 김정중의 연행록이 한 중문사의 교유 측면에서도 깊이있게 읽혀야할 이유를 제공한다. 友道는 상호적인 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厚意에 대해 김정중은 “중원 땅 천만리에서 支離하게 선비 논하다 그대같이 기이한 이를 만났구려<sup>50)</sup>”라고 화답했다. 이제 짧은 만남에 긴 이별을 아쉬워하며 어두워오는 동쪽 먼 산하를 바라보면서 이별 후에도 소식전하길 잊지 말라<sup>51)</sup>는 정가현의 고별시에 대해 헤어짐을 숙명처럼 받아

47) 앞의 글 “翁且歸矣，他日東人來余得過而問焉，爲道翁之學日益深，道日益著，而彼都人士，共相稱道夫翁者日益不衰，因以共信余前言之不謬，而余亦得附爲知人之明。此則翁之責也，亦余之所厚望也夫。”

48) 金正中, 『燕行錄』「正月二十日·別章」, “問年慙馬齒, 得價托龍門, (….) 寄語東海客, 吾道有時尊.”

49) 金正中, 『燕行錄』「正月二十日」, “袖其序與書畫, 歸披視諸人, 尹奉事卽高談而讀之曰, 序文古雅流暢, 非江南名士伊淵源, 那得有此? 松園曰, 此畫真奇寶, 世爲傳寶藏, 勿與他人.”

50) 金正中, 『燕行錄』「正月二十二日」, “爲是中邦千萬里, 支離論士到君奇.”

51) 金正中, 『燕行錄』「正月二十二日」, “少伯書一絕示余, 其詩曰, 會短離長可奈何, 黯然東望遡山河, 君歸記取傳書意, 珍重秋天一雁過. 余卽席和之曰, 浮生聚散一世何, 不日征車渡玉河, 莫恨新秋稀嶺雁, 江南黃葉夢經過.”

들이며 소식이 드물어도 꿈결같이 지낸 이 시간을 기억하겠노라는 김정중의 화답은 연인의 이별처럼 가슴 아프게 전해진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교감과 우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듯 순간적으로 빠져드는 神交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여행으로서의 여행체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헤어짐을 동반하는 여행은 그것이 일회성 만남에서 그칠 확률이 높을수록 더욱 충동적이리 만큼 깊은 교유와 상호교감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정중은 정가현의 그간의 우의를 “평생동안 은혜를 깊이 간직하여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가현의 시가 자신의 고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과 정가현이 과거시험을 보는 8월 18일에 의관을 정제하고 향을 피워놓고 축수하면서 급제를 염원하는 시를 지어 서신으로 보냈다. 아울러 우연히 만난 벼를 막역하게 대해준 것으로 자신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만나 우리의 교유를 잊게 하자고 기약하기도 했다.<sup>52)</sup>

그러나 정가현은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정가현은 그 소식을 답서로 알려오면서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운명의 窮通에는 천명이 있고 당신은 나에게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영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주길 기대했다. 그는 계속 북경에 남아 소학 공부 3년을 채우고 교수로 발탁되기

52) 金正中, 『燕行錄』, 『興程少伯書』, “余顧何人, 得此盛恩, 終身佩恩. 永世難忘也. (….) 來間行中所得, 僕出足下詩示之, 人皆歎賞曰, 詩道自嘉隆以來, 其變極矣, 格卑意淺, 無復大雅遺音, 而此詩平淡瀏亮, 不拘繩尺, 不窘塗轍, 鬱然有古作者氣格, 遞相傳誦, 至今不怠. (….) 且足下赴試, 卽八月十八日, 余晨起整冠帶, 燕香一炷, 持酒一杯, 舉手遙祝, 口點一絕, 以代祝辭. 其詩云, 東奎瑞彩耀中秋, 皇帝臨軒試九州, 太學門前新斲石, 賀君名在百花頭, 未知僕之誠意, 上格穹蒼, 使朱衣點頭, 黃甲名唱耶? (….) 邂逅燕市之中, 犁然相合, 許以莫逆, 自喜此身不許生一世 (….) 又安知兩家後裔, 如吾輩之邂逅, 銜盃敘舊, 以續吾輩之遊乎, 皆不可吾知也.”

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당신과의 만남은 천만리에 사는 사람들이 잠시 말을 나누고 막역한 친구가 된 하늘이 만들어 준 만남으로 참으로 이를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마땅히 더불어 道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훌륭한 명망을 떨어뜨리지 말아서 저 하늘이 묵묵히 도우신 뜻을 저버리지 말고, 교유와 친애에만 만족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완성된 『연행일기』에 대해서는 서문을 붙여 간행되도록 돕겠다고 하면서 일용정기문의 탁본과 함께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sup>53)</sup>

김정중과 정가현의 교유는 조·청 재야 지식인의 교유로서 새삼 더욱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懷才不遇한 선비로서 각각 자국에서 등용되지 못했다. 김정중은 청의 지배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벼슬을 하면서 자신의 도를 실현해야 했고, 김정중은 연행을 온 조선의 재야 선비이다. 청의 지배라는 거대 문화의 현실에 저항하면서 당대 조정에서 자신을 등용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자학을 실천하고픈 문인 지향의 두 사람에게 그 짧은 만남은 인생에서 강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역만리에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는 것이다! 이 특별한 연대감은 긴 이별로 인해 더욱 서로를 추억하게 만들었다.

김정중의 『연행일기』는 1792년에 완성되어 정가현에게 보내졌고 정가현은 1793년 정월에 그 책의 서문을 쓰면서 그 첫머리를 이렇게 기술했다.

옛 사람의 말에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만 리의 길을 여행하는 것만 못하

53) 金正中, 『燕行錄』, 『程嘉賢答書』, “秋園被黜, 甚辜知己厚期, 不勝慙慙, 顧窮通有命, 足下視僕, 豈以得失爲榮辱者哉? 現在國小學中, 三年報滿, 得以廣文, 選用一時, 大槩難賦歸來. (….) 至吾兩人千萬隔絕之中, 一朝遇於燕市, 傾蓋之間, 便成莫逆, 殆天作之合, 誠所爲莫之致而致者, 當與足下共勉之, 毋爲非道, 毋墜令名, 以毋負彼蒼默相之意, 不特足爲交遊光寵而已. 燕行日記, 既有成書, 自當附綴數言, 藉以壽世, 特恐多荒謬, 爲人嗤笑, 奈何奈何? 劄劄告成, 并前一翁記文榻本, 寄我數帙.”

대[讀萬卷書, 不如行萬里路].’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장에 있어서는 꼭 공교로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아마도 듣고 보는 견문이 깊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어느 때에 쌓은 것이 글로 나타나 一家의 경지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렇게 되고 마음으로 놀라워하여 그 감동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칭찬과 감탄을 더할 길이 없게 할 터이니 아마도 그 글이 공교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일 것이다.<sup>54)</sup>

인용의 첫머리에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만리의 길을 여행하는 것만 못하다[讀萬卷書, 不如行萬里路].’라고 한 것은 주의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김정중의 인식 역시 그 점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있지만 정가현은 뚜렷하게 자신들의 만남이 여행의 결실이며 이 『연행록』은 여행으로 인해 그 깊이를 더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김정중의 『연행록』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룩될 수 있었는가에 근본적인 통찰로 새롭게 읽힐 근거를 제공한다. 그것은 ‘연행이라는 여행’이다. 그러므로 견문에 대한 감평에서부터 연행록은 새롭게 읽힐 필요가 있다. 여행자가 보고 듣고 접한 것에서 편견은 없는지, 얼마나 대상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기술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진정을 가지고 만났는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김정중의 연행록은 충분히 다시 음미할 만한 요소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정중은 여행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역만리에서 맺은 우정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54) 程嘉賢, 『燕行日記序』“昔人有言, 謂不讀萬卷書, 不行萬里路, 爲文必不工. 其於詩也亦然, 蓋資於聞見者深以後, 以其平日之所積, 發而成爲一家之言, 使讀者目眩心駭, 不知其所自來, 而無從加其讚歎, 蓋其工也如此.”

#### IV. 맺음말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해 기대하고 설레인다. 특히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를 잡아 중국이라는 그야말로 동경해 마지않던 나라를 다녀온 경우라면 그 정도는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김정중은 벼슬 없는 조선의 지방 문사로서 정가현이라는 자신이 존신하는 주자학의 선성인 정자의 후손을 만나 깊이 인정받으며 시문을 수창하고 神交를 나누었다. 떠나올 때에는 백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 정가현의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김정중의 감동은 매우 컸다. 김정중의 『연행록』은 바로 그러한 한 개인의 여행 체험과 감동을 허세없이 정직하게 기록한 여행문학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청나라가 번영을 구가하고 조·청간의 관계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를 구축한 시기에 조청 양국에서 아직 관직을 구하지 못한 문사들간의 대화와 수창록은 양국의 재야 문사, 자신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 느낌을 나누는 최전선의 자료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저마다의 처지에 놓은 양국 재야 지식인들이 상대방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김정중이 정가현을 그토록 그리워한 이유는 정가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가현이 김정중을 떠나보내면서 그토록 아쉬워한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중의 평가로 인해 정가현은 스스로 중국의 문사 가운데 우뚝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연행의 의미와 성과는 그것 그대로 응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 않는가? 여행을 통한 만남과 교류는 때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본질적인 경험 이 되곤 한다. 김정중의 연행록에는 그런 점이 특히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참고문헌】

- 金景善 著, 林基中 編, 『燕轅直指』(『燕行錄全集』 70),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 金正中 著, 林基中 編, 『燕行錄』(『燕行錄全集』 74),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 金正中 著, 鄭然倬 譯, 『國譯 燕行錄選集』VI, 『燕行錄』, 民族文化推進會, 1976
-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김영진, 『연행록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방법에 대한 시론』, 『대동한문학』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 김현미, 『연행록 문학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과제』, 『대동한문학』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 박수밀, 『북경 유리창과 지식인 교류의 세 층위』, 『한국언어문화』 4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윤경희, 『연행과 자제군관』, 『제10회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11
- 임기중, 『제7장 연행록의 대청·대조선 인식』 『증보판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 최소자, 『“연행록” 연구를 위한 제언』, 『명청사연구』 30집, 명청사학회, 2008
- 최소자, 『18세기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 32집, 명청사학회, 2009,
- 홍성구,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Abstract

Kim Jeong Jung's 『Yeonhaengrok』 as Travel Literature

-Focusing on his exchange with Jeong Ga Hyeon (程嘉賢)

Ham, Young-dae\*

This study examines Kim Jeong Jung's 『Yeonhaengrok』 from the aspect of travel literature. It carefully observes Kim Jeong Jung's self-consciousness and aspiration for Yeonhaeng, the episodes and recognition of objects Kim Jeong Jung experienced, and his exchange with people as well. These are the core elements consisting of the travel and enriching his experience of Yeonhaeng. And it changed Kim Jeong Jung's life profoundly.

Exchange with Jeong Ga Hyeon is the most significant thing among Kim Jeong Jung's experiences in Yeonhaeng. Encountering each other accidentally in Yurichang, Peking, Kim Jeong Jung and Jeong Ga Hyeon started exchange and accepted each other as a truthful friend calling their meeting as spiritual exchange (Shingyo: 神交). Both had neo-Confucian refinement and were literary men not in a government position. This commonness aroused them to feel a sense of kinship. Kim Jeong Jung met him in an accidental travel of Yeonhaeng and accepted the total stranger as a friend for life.

This met as if it had been fate and had favorable impression toward each other, and they communicated by writing. They talked about many things including Jeongjeon (井田), Bokje (服制), Gwageo System, or Munbeol and also shared deep empathy reciting poems. They felt deeply sad when they had to part as if they had been old lovers. And after the parting, they exchanged letters to maintain friendship.

In the point that Kim Jeong Jung and Jeong Ga Hyeon communicated about

---

\*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ncumbent researcher at Dankook University

serious topics and showed serious attitudes toward that exchange, it should be remembered as meaningful empathetic memory between intellectuals of Joseon and Qing not in a government position. Joseon's literary man, Kim Jeong Jung, could find himself as an intellectual not in a government position through the travel of Yeonhaeng (燕行) and built his identity. It was accomplished through seeing and hearing in the travel and also meeting Jeong Ga Hyeon, an intellectual not in a government position in Qing. When we read it as travel literature, Kim Jeong Jung's 『Yeonhaengrok』 exhibits its true nature even more brightly.

Key-words : Kim Jeong Jung, Jeong Ga Hyeon, Yeonhaengrok, exchange of intellectuals not in a government position, travel literature

함영대

소속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소 : (487-020)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862

전화번호 : 010-3035-3302

전자우편 : alongdiri@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